

兩獨統一化 동태의 政治地理學的 考察： 관계열강의 입장과 그 변화(1989.11-1990.8)를 중심으로

任 德 淳*

—(目 次)—

1. 문제제기와 研究目的
2. 研究方法과 자료
3. 관계열강의 統獨에 대한 입장과 그 변화：
정치지리학적 해석
4. 양독 통일화 동태의 실상과 통일가능성：結論

1. 문제제기와 研究目的

소련의 實用主義的인 개방주의 정치가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소련은 물론 東歐 여러 나라에도 개방과 개혁이 진행중이다. 그러한 추세에 일환으로 東獨에도 개방과 개혁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1989. 9월에서 10월에 걸쳐서는 동독 사람들 약 5만인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을 거쳐 西獨으로 탈출하기에 이르렀다.

거기다가 그 탈출을 전후해서 헝가리 정부가 동독인들의 서독이주를 위해서 自國國境을 개방하였고, 동독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에 체류하고 있던 동독난민들의 서독이주를 허용하였다. 특히 동독인들이 체코슬로바키아를 경유하여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한 동독정부의 조치(1989. 11. 4)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였다. 위와 같은 조치들이 행해짐으로써 東西獨간 분단장벽의 存置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1989. 11. 9에는 드디어 동독정부가 自國의 國家意識 보전상, 그리고 또한 동독국민의

서독으로의 탈출방지사상 중요시해온 境界'인 동-서독 국경(베르린장벽 포함)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그 개방은 兩獨간에 자유로운 왕래 및 물자거래, 경제적 상호의존, 民族文化의 同質化 등을 보장·촉진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조만간에 독일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통일희망을 '통일현실화'로 바꾸어 가게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였다.

위 개방을 계기로 하여 특히 서독정부측의 統一意志는 예상보다 더 빨리, 그리고 매우 크게 고무되어 콜 總理가 「3단계 통일안」을 내놓게 되었으며(1989. 11. 28), 그 案제시 이후 同案에 대한 利害당사국들의 검토와 비판이 활발히 이루어지더니 현금에 이르러서는 동서독이 통일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過程이나 統一化 동태는 政治地理學的으로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크다. 일국의 國土統一은 영토 및 인구의 커다란 증가를 통해 國富나 국내정치의 기초가 되는 政治的 空間의 확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당사국 주위의 地域的 국제정세나 力學關係, 나아가 國際關

* 忠北大學校 副教授

이 연구는 1990년 大韓地理學會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임.

1) Faringdon, H., 1989, *Strategic Geography*, Routledge, London, p.354.

係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國土統一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兩獨의 통일화 작업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일들 즉 통일의식의 발전·확산, 합리적인 과정의 이수, 이해관계국들에 대한 서독정부의 설득 및 협조연기, 주위에 존재하는 정치지리적 또는 地政學的의 관련조건들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그에 대한 적응등은 한국의 통일준비에 유익한 시사들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가치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意義를 지닌 본 연구의 目的은 독일통일에 사실상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여겨지는 關係列強(소, 美, 佛, 英)의 독일통일에 대한 입장과 그 변화를 검토·분석함으로써 통일가능 여부를 포함한 東西獨統一化 동태의 실상을 알아내는 데 있다.

2. 연구방법과 자료

본 연구에 쓰인 방법으로 우선 사실·사건 보도들을 게재하는 月刊新聞을 이용한 文獻의 方法을 들 수 있다. 1989. 10. 1-1990. 8. 25의 「조선일보」 상에 등재된 사실·사건 기사들이 구체적 사용자료이다. 기획기사나 해설기사는 사실·사건 기사가 아니어서 原資料性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사건 보도기사들을 1차적인 자료로 이용한 것이다.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보도기사들은 정치지리 연구에서 크게 유용한 자료로 인정된다.

또다른 하나의 방법은 해석적인 방법이다. 관계되는 사실·사건들을 면밀히 찾아내 검토하고, 거기서 얻은 파악내용들 즉 ‘드러난 것들’을 연구자의 정치지리학적 지식구조와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을 따른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문헌적-해석적 방법을 써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3. 관계열강의 統獨에 대한 입장과 그 변화: 政治地理學的의 해석

독일통일 논의와 관련하여 관계열강이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입장表明을 한 것은 東獨정부가 자국국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1989. 11. 9 이후의 일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바로 당일에, 소련은 하루 뒤에, 영국은 다음 해인 1990. 2. 13일에 각각 표명하였다. 우선 여기서는 열강의 입장과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독일에 대한 기존의 인식내용들을 음미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인식내용들은 열강의 입장과 그 변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 독일에 대한 기존 인식내용들

2차대전 이후 全독일과 동·서 양독에 대한 정치지리학자(地政學者) 및 관계인사들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戰後 독일 땅이 지녀온 地戰略的 또는 政治的 성격들을 알 수 있다. 全독일에 대해서는 대개 3가지 인식이 있고, 서독과 동독에 대해서는 각각 2개씩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특히 全독일에 대한 것들을 보면 그것은 첫째 東西세력간 대치지, 둘째 팽창실현 가능성의 땅, 셋째 계속 분단되어 있어야 할 곳이다.

이들 인식의 구체적 표현내용을 그 주장자와 함께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독일(또는 전독일)은 :

“독일 지정학자들이 보기에 유라시아 육상세력과 서부 해양세력간의 中央的 土地이다”²⁾(S.B. Cohen) - 대치지 인식

“양대 초강국의 무력이 독일內 동·서독 경계를 중심으로 대치되어 있는 곳이다”³⁾(K. Ritter) - 上同

“대륙적 熱望과 해양적 열망을 모두 지닌 地政

2) Cohen, S.B., 1973, *Geography and Politics in a World Divided*, Oxford Univ. Press, New York, p.78.

3) Ritter, K., 1976, "Two Germanys in Two Security Systems: Considering the Military Postures in the Context of Deterrence, Defense, and Arms Control," in: Kim, S.(ed.), 1977, *International Peace and Intersystem Relations in Divided Countries*,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Seoul,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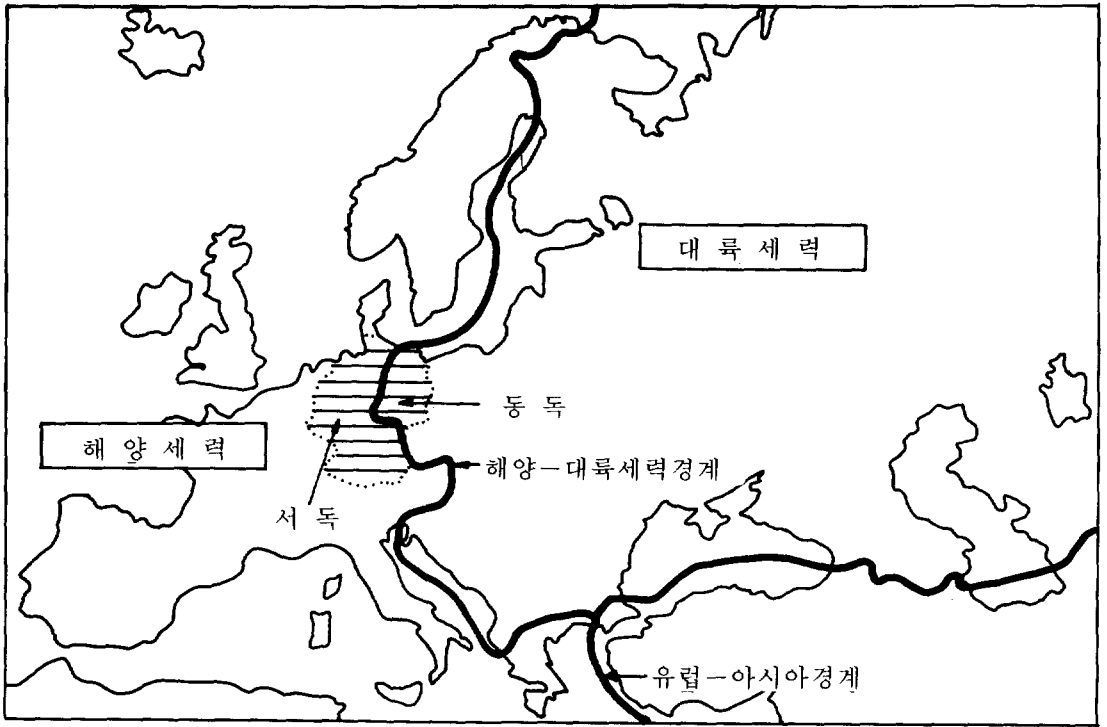


그림 1. 東·西獨 : 유럽내 海洋勢力-大陸勢力의 대치

學的 의문의 땅이요, 해양세력 성격과 대륙세력 성격을 겸비한 곳이다”⁴⁾(S.B. Cohen)-팽창가능성의 땅 인식

“유럽의 안전을 위해 분단되어 있어야 할 곳이다”⁵⁾(英外相 S.Lloyd)-분단필요지 인식

“주위국가에의 위협을 생각할 때 두개의 국가로 존재해야할 땅이다”⁶⁾(伊外相 G.Andreotti)-上同

“독일의 現 분단은 地政學的으로 보아 건전하고 戰略的으로 보아 필요한 일이다”⁷⁾(S.B. Cohen)-上同

西獨은 :

“해양세력의 중요한 要素이다”⁸⁾(S.B. Cohen)

“WTO 군대가 침공해오는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방어해야 할 곳이다”⁹⁾(P. O’Sullivan)

“NATO 에게 제1의 군사기지요 社會主義 諸國 쪽 변경에 대한 전초기지이다”¹⁰⁾(H. Faringdon)

“두개의 중요한 地政學的 시스템의 분계선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要地요, 유럽의 군사적 핵심지이다”¹¹⁾(H. Faringdon)

끝으로 東獨은 :

4) Cohen, S.B., 1973. *op. cit.*, pp.78 - 81.

5) Faringdon, H., 1989. *op. cit.*, p.259.

6) *ibid.*, p.259.

7) Cohen, S.B., 1973. *op. cit.*, p.83.

8) *ibid.*, p.82.

9) O’Sullivan, P., 1986, *Geopolitics*, Croom Helm, London, p.115.

10) Faringdon, H., 1989. *op. cit.*, p.258.

11) *ibid.*, p.258.

“대륙적 육상세력(land power)의 중요한 요소이다”¹²⁾(S.B. Cohen)

“독일의 세계지배 꿈이 자란 곳이고, 독일침략의 꿈이 자란 곳이다. 또한 독일 육상세력의 상징적 땅이다”¹³⁾(S.B. Cohen)

이상이 전독일과 동·서 양독 각각에 대한 인식 내용들이거나, 2차대전후 독일 땅은 그의 위치와 機能面에서 소유권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독일(양독) 땅에 지금 상황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 관계열강의 입장과 그 변화 :

정치지리학적 해석

(1) 소련

소련의 戰爭史를 볼 때 이 나라의 커다란 피침은 거의 모두(대전의 약 95%) 서쪽으로부터 당해왔다. 스웨덴의 공격(18세기초), 프랑스 나폴레옹의 공격(19세기 초반), 영·불의 공격(19세기 중반), 독일 히틀러의 공격(2차대전 때) 등이 그 중 큰 내침들에 해당된다. 이러한 내침들은 소련으로 하여금 그 ‘서쪽에’ 완충지대를 설정·운영하도록 하였고, 또한 그 설정·운영을 합리화하는 근거들로 사용케 하였다.¹⁴⁾ 이처럼 ‘서쪽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는 소련이 바로 그 서쪽(좀 격리되어 있기는 하지만)에 있는 독일의 再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왔고, 그 입장변화는 어떻게 나타나왔는지를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위와 같이 하고자함에 있어서 필자는 소련정부의 言明이나 반응이 나온 시기적 순서를 따라서, 그리고 同一系列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것들은 하나의 ‘계열적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을 가하기로 하였다. 이하 다른 나라의 분석 및 해석에서도 같다.

① 1989. 11. 9에 단행한 동독의 국경개방에 크게 반발(1989. 11. 10) - NATO와 WTO 균형화에 統獨 주장(11. 29) - 유럽 기조질서 지키는 전체하의 통독 주장(12. 6) - 동·서독의 ‘中立化統一’ 주장(1990. 1. 2)(이상 표 1 참조)

위의 계①계열 덩어리를 해석해보기로 한다. 소련정부가 1990. 1. 2에 언명한 ‘동·서독 中立化 통일’ 주장은 실은 兩獨 뿐만 아니라 서부유럽 전체를 중립화하자는 소련의 오랜 構想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¹⁵⁾ 중립화하고자 하는 유럽중에서도 소련측에게는 가장 절실히 그리고 일차적으로 그 중립화가 요망되는 곳이 독일이어서 위치럼 주장한 것이다. 이른바 ‘西쪽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려면 독일을 중립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던 것이다. 그 인식이 1950년 이후에 다시 노골화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입장은 근본적으로는 독일과 육지로 비교적 쉽게 연결될 수 있는 地理的 조건을 안고 있는 소련이 自國의 서부변경 쪽의 不安을 크게 고려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② 중립화 統獨案 철회용의 표명(1990. 4. 6) - 통독을 독일민족 自決에 맡길 것 표명(4. 14)

위의 일련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우선 中立化 통독안의 철회용의 표명에 대해서 보면, 그 철회용의는 커다란 思考變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은 독일이 중립화 통일 후 얼마간은 中立을 지킬 것이나 계속해서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게 된 것 같다. 그리하여 생각을 바꾼 것이다. 독일이 통일될 경우 35만6, 800km²의 면적, 7, 690만 인구, 그리고 1조617억 달러의 GNP(1986년 현재)를 지닌 강대국 통일독일¹⁶⁾이 그의 意志에 따라 언제든지 중립을 깰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중립을 깨면 그것은 소련에게 다시 위협이 될 것으로 본 결과, 과거부터의 구상으로 지켜왔고, 또한 1950년에 이어 두번 째

12) Cohen, S.B., 1973, *op. cit.*, p.82.

13) *ibid.*, p.79.

14) Faringdon, H., 1989, *op. cit.*, pp.86 - 87.

15) O'Sullivan, P., 1986, *op. cit.*, p.38.

16) Newspaper Enterprise Association, 1988,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1989*, NEA, New York 에 의거 필자 계산.

표 1. 양독 통일화 관계 주요사건 일지

<p>1989. 11. 9. 동독, 국경 전면적 개방</p> <p>11. 10. 서독총리, 자유-민족자결 원칙하에 통독指向 주장</p> <p>11. 25. 동독서기장(신임. 개혁노선자), 동독의 사회주의견지 주장</p> <p>11. 28. 서독, 3단계 통일안 발표</p> <p>1990. 1. 1. 동독, 4단계 통일안 발표</p> <p>1. 2. 소련, 동독의 중립화 통일안 찬성</p> <p>2. 19. 서독 외무·국방장관, 통독후 NATO군의 동독주둔 금지 합의</p> <p>2. 25. 미·서독, 통일독일 NATO잔류합의</p> <p>3. 6. 서독, 오데르-나이제 국경 공식인정</p> <p>3. 18. 동독기민당(서독귀속 주장), 동독 총선서 승리</p> <p>3. 22. 소련, 소·서독간 통독절차 합의하면 통독 쉽게 될 것임을 언명</p> <p>3. 22. 미국, “통독 독일인 자결문제” 언명</p> <p>4. 11. 소련, 통일독일 NATO, WTO 동시 귀속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中立化 통독안의 후퇴)</p> <p>4. 12. 동독, “유예기간중 통일독일 NATO 잔류, 과도기간중 동독 자체군대 유지” 언명</p> <p>4. 12. 동독, 서독귀속에 의한 통일방식 추종 언명</p> <p>4. 13. 미·영, 통일독일 NATO잔류 언명</p> <p>4. 14. 소·폴란드, 독일민족 자결에 의한 통독 지지(단, 기존 국경유지)</p> <p>4. 15. 서독정부, 화폐단일화(90.7) - ‘2+4’ 회담 - 유럽안보협력회의(35국) - 서독 총선(90.12) - 양독합동총선(91. 가을)의 통독 단계를 전망.</p>	<p>4. 28. EC정상들, 통일독일 NATO잔류 지지. 통독도 지지</p> <p>5. 5. ‘2+4’ 외무장관 회의의 정식 개최(최초)</p> <p>5. 5. 소군 장성(공산당 고문), 통일독일 NATO 잔류 주장</p> <p>5. 5. 소련, 통일독일의 군사동맹가입 문제 통독후로 연기가능 언급</p> <p>5. 18. 동·서독, 양독간 화폐·경제·사회 공동체 창설 조약 조인(각측 비준, 6.21)</p> <p>5. 26. 소련 대통령, 통일독일 정치면만의 NATO잔류 제의</p> <p>6. 12. 소련, 통일독일의 NATO, WTO 준회원 각각 가입 제안</p> <p>6. 14. 소련·통일독일의 새 유럽안보체제에의 가입 필요 언명</p> <p>6. 17. 동독의회, 동독의 서독에의 합병 선언안 채택</p> <p>6. 22. 소련, 6.12 제안에 대한 타협용의 표명</p> <p>6. 26. 서독, 90.12.9나 12.16에 양독총선 직후 통일상태 진입안 검토요청(對 동독)</p> <p>7. 초. 양독, 全獨 총선 90.12.2 실시 합의</p> <p>7. 16. 소련 대통령, 통일독일 NATO회원됨을 수용할 것임을 언명(단, 통독지역에 외국군대 주둔 금지)</p> <p>7. 17. ‘2+4+폴란드’ 외무장관들, 통독후에도 現 동독-폴란드 경계 유지 합의</p> <p>8. 초. 서독의회, 全獨 총선거일 90.12.2로 확정</p> <p>8. 22. 서독총리, 90.9.12에 통일성취 회담</p> <p>8. 22. 동독의회, 90.10.3을 통일날짜로 결정</p>
---	--

의 주장인 독일의 중립화통일안을 숙고끝에 철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民族自決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초까지 독일인들에 의해서 공공연히 주장되고 또한 조용히

추진되어온 것으로서, 독일의 재통일과 유럽의 새로운 평화구조(new peace structure) 형성을 위해서 구상된 여러가지 개념들이나 아이디어들의 밑바탕에 깔려있어 왔던 것이다.¹⁷⁾ 그러한 민

17) Schwarz, H., 1976, "Detente and Containment as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terminants of Intersystem Relations." in: Kim, S.(ed.), 1977, *op. cit.*, p.80.

족자결을 서독지도자들이 이번에 은근히 내세웠고, 소련은 그 자결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유럽의 새로운 평화구조 형성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면서 고려한 것이다.

③ NATO 내 통독 강력히 반대(1990.4.1)

이 반대는 위신(prestige) 유지와 더 나은 實利 획득과 관련이 있는 반대라고 본다. 그간 미국과 西獨은 NATO 내 統獨을 바라거나 주장하면서, 그 NATO 내 통독이라는 것을 '東獨지역은 NATO 地域化하지 않는 NATO 내 통독'으로 정리했고,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統獨政策 추진에 임해왔던 것이다. NATO 내 통독이라 하더라도 실질상으로는 現동독지역에는 NATO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서독지역만 NATO 지역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NATO 내 統獨이 통일독일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견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소련의 安保를 유지시켜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로 그 소련이 NATO 내 통독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超強大國인 자국의 체면이 관계되어서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전술한 바 實利를 얻어내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가위신과 實利획득은 대단히 중요한 要因들인 것이다.

④ 통일될 독일의 군사동맹체 가입(군사적 지위) 문제를 통일 후로 미룰 수 있다고 언명(1990.5.5)

소련의 위 言明은, 통일 독일의 NATO 등 군사동맹체 가입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니(놀랍게도),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라도 먼저 통일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고 본 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전술한 바 NATO 내 통일(동독지역은 非 NATO 지역화)이 지닌 安保上的 長點을 소련이 사실상 크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또한 그 언명은 NATO 내 통일을 수용함으로써 西獨과 미국으로부터 非군사면의 협조를 얻으려는 데서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⑤ 통일독일의 새로운 유럽 안보체제(NATO 나 WTO 가 아닌) 가입 주장(1990.6.14)

이는 강국화된 통일독일의 자유로운 군사행동

을 견제해줄 뿐만 아니라, 유럽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련은 현재의 영토규모로 만족하고 있으며, 바라고 있는 것은 自國西邊의 안전, 나아가 전국의 안전인 바 그 안전이 보장되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위 주장에 나타난 바와 같은 새로운 안보체제 구성과 그 체제로의 독일가입 주장은, 기존의 NATO 와 WTO 모두를 없애고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성하자는 논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련으로서는 내세워 볼만한 것이다.

⑥ 통일독일 NATO 회원국 되는 것 수용용의 있음을 언명(단, 소련과의 협력과 동독지역에 외국군대 주둔금지)(1990.7.16)

이 언명은 1990.5.26주 제의인 "통일독일 정치면만의 NATO 가입"을 일보 더 진전시킨 것으로서 소련의 의도를 거의 최종적으로 밝힌 중대한 언명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점을 필자는 앞의 ③ 해석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소련의 체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말한 바 있다.

통일독일이 NATO 에 가입하면 독자적 군사행동을 견제당할 수 있어서 소련으로서는 자국 安保에 유리하고, 독일통일을 소련이 승인했다는 점에서 독일국민과 그 정부로부터 우호적인 대접과 협력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東西간 군사적 대치에서 오는 막대한 비용도 소련은 줄일 수 있다. 그러하면서도 현재의 동독지역에는 NATO 군대등 외국군대가 주둔치 않아 소련은 완충지대를 갖게되는 셈이다.

결국 소련정부는 유럽내에서 통일독일의 군사행동이 견제되는 것으로나마 서부변경의 안전유지를 확보하고, NATO 내 統獨을 승인함으로써 통일독일과의 협조관계, 나아가 미국과도 협조관계를 맺게되어 道徳성과 實利 양면에서 득을 취하며, 그러한 가운데에서 변형된 모습으로나마 東歐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계속 누리려 하고 싶은 욕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미국

미국은, NATO 군대가 中歐에서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西獨을 굳건히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지녀왔다. 미국은 비록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럽의 평화, 나아가 미국의 평화 및 西方世界 주도력 계속확보를 위해서 특히 현재의 서독—유럽내 서방측 제1의 군사기지요 對社會主義 전초기지—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해왔다. 이러한 對西獨觀을 갖고 있는 미국의 統獨立場과 그 변화를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 西歐統合內에서의 統獨 회구(1989. 11. 9) — 中立化통독 반대(1990. 2. 10) — NATO 내 통독안 확정(2. 13)

NATO는 2차대전 후 “소련인들은 막고, 미국인들은 북돋우며, 독일인들은 억누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체제”¹⁸⁾라고 할만큼 유럽에서 다각적 목적달성을 위해서 미국주도하에 만들어진 안전보장 체제이다. 이러한 NATO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은 유럽의 安定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독일이 통일된 후에도 NATO 내에 머물러 있을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립화통일은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중립화통일은 통일독일이 후에라도 中立을 깨고 나설 수 있게 하고, 또한 ‘NATO 밖에서의 통독’은 통일독일로 하여금 역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자의로 할 수 있게하는 바탕을 마련해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은 위 두 방식의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② 통독문제 독일인의 자결문제로 봄(1990. 3. 22) — 통일독일의 NATO內 不잔류 무방론 제시(3. 22)

미국정부가 統獨을 독일인의 자결문제로 본 것은 민족자결이 전술한 바 유럽의 새로운 평화구조형성에 이로울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소련측이 그간의 입장을 완화한 점 즉 소·서독간 양독 통일절차에 대해서 합의하면 그 통일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입장을 완화한 점도 고려한 결과이다. NATO 내 불잔류 무방론은 서방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독일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낙관적으로 예측해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③ 다시 NATO 내 통독 강력주장(1990. 4. 6)

미국은 NATO 내 통독이 소련의 安保에도 이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워치럼 다시 강력히申明하였는데, 이는 소련으로 하여금 自國安保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 결국 서방측 案(NATO內 통독안)을 수용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종의 心理的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中歐의 안정, 나아가 유럽전체의 안정 및 自國의 주도적 지위 계속 확보를 위해서 통일독일이 中立化되는 것을 반대하고—이점은 소련의 반대와도 궤를 같이한다—대신 통일독일이 NATO 내에 머무를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3) 프랑스

프랑스는 독일과 인접해 있고, 普佛戰爭과 2차대전 때 독일에 패전과 치욕을 당한 경험을 뼈아프게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때문에 소련과 함께 근본적으로 독일통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自國力만으로는 유럽 정치무대에서 주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한계가 프랑스의 對統獨立장과 그 변화에 나타나 있다.

① 東獨정부의 국경개방 조치 일단 축하(1990. 11. 9) — 독일통일을 유럽의 안정질서 유지 전제하에 인정(12. 6) — EC內 통독 주장(12. 9) — 통독을 민족자결에 맡기는 것 지지(12. 12)

위의 입장표명들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EC內에서 경제적으로 서로 우호관계를 깊이 맺고 있는 인접국 西獨측의 통일희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을 그 서독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일단 동독정부의 국경개방 조치와 독일통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러나 內心은 역시 불안했고, 그리하여 自國이 노려온 것 즉 EC를 핵심적 機能者로 삼아 유럽統合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兩獨이 통일되는 것을 주장하고 나섰으니, 그것이 곧 EC內 통독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통합 유럽내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프랑스가 쥐거나, 적어도 통일독일과 나뉘어 쥐

18) Faringdon, H., 1989, *op. cit.*, p.193.

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최소한도 나뉘어 취급되는 경우 佛·獨 양국은 지금보다 더 친교가 깊어지고, 그것은 프랑스에게 對獨 安保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한 것이다.

② NATO 내 통독안 EC 정상들과 합의(1990. 4. 28)

EC 내 통일 안에서 NATO 내 통일안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약 5개월 사이에 일어난 변화이다. 자국 국력기초의 주도력을 지니지 못한 프랑스가, 1990. 4. 13까지는 이미 美·西獨간과 美·英 간에 NATO 내 통독안이 합의된 것을 고려하고, 기타 EC 국가들도 위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EC 정상들과 함께 NATO 내 통독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거기에는 물론 위와 같은 통독이 역시 통일독일의 군사행동 억제(견제)에 효과적인 것이라는 생각과 희망이 들어있음은 물론이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大勢의 흐름에 따른 셈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有事時 미국의 對獨 견제도 요청할 수 있고, EC 諸國과도 계속해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였다.

(4) 영국

대륙에서 도버해협으로 격리된 영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유럽대륙내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유지에서 구해왔다. 영국의 안보상의 관심은 대륙내에서 국가간 또는 국가집단간에 세력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에 두어왔다. 세력균형이 깨지려할 경우 영국은 그 균형을 지키는 對外政策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그러한 영국의 對統獨 입장은 어떠한가 살펴보기로 한다.

① 통독이 물고을 결과를 장기적 안목으로 고려하자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1990. 2. 13) - 통독 반대(3. 初) - NATO 내 통독안 수용(4. 13)

독일에 인접한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은 동독의 국경개방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

았다. 영국으로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여야한다는 자세가 관계되어 있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다른 나라들 보다 늦게, 그나마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가 금년 3월에 와서야 本心의 주장 즉 “독일통일 반대”를 표명하였는 바, 그 반대는 필자가 보기로는 영국측의 진정한 의도에 매우 가까운 것이다. 독일 재통일은 독일민족주의를 크게 고취하고 기존의 西部, 中部, 東部 유럽에 걸친 現狀維持를 타파하며 나아가서·중부 유럽에 강국 독일이 부상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된 독일이 EC와의 관계상 프랑스와 손을 잡거나, 아니면 소련과 손을 잡는 경우—이러한 예측은 국제관계상 가능하다—영국은 유럽에서의 周邊的地位를 감수해야 하고, 겸하여 2등국가로 전락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고려하여 영국은 통독에 반대하고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반대는 그러나 약 1개월후 NATO 내 통독이라는 미국주도의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유럽에서의 기존지위 유지에 靚英的인 미국의 커다란 지원·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터에 미국의 권유도 있고, 이미 미·서독 간에 NATO 내 통독안을 합의(1990. 2. 25)한 점도 고려하여서 위치럼 입장정리를 한 것이다. 적어도 유럽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영국은 미국안에 응하는 입장을 계속 취하게 될 것이다.

영국은 결국 유럽내의 세력균형 유지를 통한 자국안보를 생각해서 일단 통독에 반대했다가 미국의 권유도 있고해서, 미국노선을 따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國際政治속에서 영국은 現實指向의 外交를 택한 것이다.

이상 4강국의 입장들과 그 변화를 政治地理學的으로 해석해보았거니와, 그러한 입장들과 그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기초적으로 작용(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하였다고 본다. 즉:

① 對獨 地理的 거리: 지리적 거리는 평화든 전쟁(또는 갈등)이든 간에 국제관계에 일차적으로 작용한다는 정치지리학적(지정학적) 원리¹⁹⁾가 이 경우에도 부합한다.

19) O'Sullivan, P., 1986, *op. cit.*, p.1.

- ② 中歐에 자리잡고 있는 독일의 地理的 位置
- ③ 통일될 독일의 中立불건지 우려
- ④ 현실속에서의 實利추구
- ⑤ 西方측에 유리한 점을 확보하려는 의도(미국)
- ⑥ 소련에게 安保上의 강박감 주기(미국)
- ⑦ 국가 위신(특히 소련)
- ⑧ 인접국 및 기존 우호관계국들과의 좋은 관계유지 회구(특히 프랑스)
- ⑨ 유럽내에서의 세력균형 유지정책(특히영국)
- ⑩ 미국과의 강한 유대유지 회구(특히 영국)
- ⑪ 동·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베네룩스 3국(이상 西·中歐)이 샤르마뉴大帝 때(9세기) 하나의 나라였던 歷史

4. 양독통일화 동태의 실상과

통일가능성 : 結論

동·서독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할 것은 2차대전후 독일을 분단한 소·미·불·영 4대 강국의 통독에 대한 태도—입장이라고 보아, 앞에서 그것들을 살피고 해석하였다. 그들의 태도—입장들이 통독에 대해 긍정적이면서 이해관계국들간에 일치(거의 일치)하면 통일은 쉬워지고, 그 반대면 어렵거나 당분간은 실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 정치지리학적 관점이나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보면 그러하다.

특히 統獨에 있어서 정치지리적으로 보아 최대의 관건은 2차대전 때 독일로부터 침공을 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그리하여 自國 서쪽에 있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 서쪽의 東獨을 모두 위성국(군사적 방패 기능의)으로 삼아 운명해오고 있는 초강국 소련이 독일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점을 여기서 우선적으로 지적해두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은 1950년 이래 양독의 中立化 통일을 주장해 오다가, 1990.2월 이후 입장을 계속 완화해 오더니 마침내는, 自國과의 협력증대와 동독지역 외국군대 주둔금지의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NATO 내 통독을 수용하겠다고 말하였다.

西獨(또는 통일독일)과 기타 西方諸國 특히 미국이 경제 및 안보상의 실질이익을 소련에게 확실히 보장하면—이는 지금까지의 서독·소련간 타협과 미·서독의 뒷받침으로 가능하다고 본다—위의 NATO 내 통독안을 소련은 큰 부담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소련은 현재 자국 서쪽 변방의 안보와 서방 海洋勢力(sea power)—동방 대륙세력(continental power) 대결지인 中歐(특히 독일)의 안정을 위해서 동독에 36.5만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거니와(1990.2월 현재), 이 동독주둔 소련병력 규모는 양동중 어느 한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동·서방 제국중 최대 규모이고, 소련이 역시 자국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위성국가들중 최대 규모이다. 이 동독주둔 소련군대 규모만으로도 소련은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安保를 유지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안보면 외의 것으로는 소련이 오늘날 서독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의 도입을 바라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련의 이러한 상황을 서독과 미국은 적절히 이용하여 독일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대서양에 의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지만, 특히 2차대전 후 西·中歐를 自國의 利益地域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오고 있는 미국은 NATO 內 통독을 일찌감치 주장한 바 있으나, 이해관계가 걸린 他國들과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소련측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그간의 입장을 조금 완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자국의 案인 NATO 내 통독안을 서방측 우호국들(서독, 영국, 프랑스, 기타 EC 국들)에게 수용하도록 끈질기게 작용하였고, 끝내는 소련에게도 위 안을 받아들여도록 하여 현재는 거의 미국의 의도대로 NATO 내 독일통일 과정이 착착 진행되어가고 있다.

프랑스도 결국 대세에 따라 NATO 내 통독을 바라는 가운데, 독일민족 자결쪽으로 정책을 정리하였다. 유럽의 세력균형 유지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국도 결국 NATO 내 통독안을 수용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1989.11.9에 동독이 국경을 전면 개방한 이후 관계열강이 각기 그간 자국의 이해관계를 따져 여러가지 통독안들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내놓았으나, 미국이 'NATO 내 통독안'을 확정하고(1990.2.13), 그것을 서독등에게 받아들여도록 협상·작용해온 이래 작금에 와서는 소련조차도 위 안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7.16).

이렇게 되니 결국 독일을 분단한 4강국의 案이 통일되었고, 당사국의 하나인 서독도 미국안 즉 NATO 내 통독안에 합의하여 관계-당사 5국의 독일통일안이 모두 통일되게 되었다. 한편 군사적 中立化를 첫 단계로 삼아 연방형태의 통일독일을 만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안(1990.1.1,4 단계 통일안)을 갖고 있던 당사국중 다른 한 나라인 동독조차 스스로 서독에 합병(귀속)하기로 확정함으로써(1990.6.17) NATO 내 통독안에는 결국 반대국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거기다가 현재의 동독-폴란드 국경인 오테르-나이제 경계에 변화가 생길 것을 우려해온 폴란드의 심려도 양독 정부·의회와 소위 '2+4+폴란드' 의무장관들이 그 不變을 확고하게 약속함으로써 해소되었고, 또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까지도 안보상 中立化統獨을 반대하고 있어서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들은 거의 모두 해소된 셈이다. 결국 동·서독은 '동독을 NATO 地域化하지 않는 조건의 NATO 內 통독안'에 의해 통일될 것이다.

다만 통일시기가 주목거리인 데, 서독정부는 당초에는 늦어도 1992.2월 말까지는 되리라고 내다보았지만, 1990.5.5의 소련의 양독 先統一 고

려 언명과 그에 기인한 서독내 조기통일 성취희망 열기, 동·서독 화폐의 단일화(1990.7.1)와 그 성공, 소련의 NATO 내 통독안 수용 언명(7.17), 동독 측의 1990.10월중 통일실현(통일독일 국회 구성전에 통일 먼저) 요구, 서독총리의 1990.9월 중순 통일희망, 양독의 양독 합동총선거(통일독일의 국회구성을 위한) 1990.12.2 실시 최종 확정등으로 인하여 그 시기가 크게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먼저 이루고 통일독일의 국회가 나중에 구성되며, 그에 따라 통일독일 정부가 구성(組閣)되는 순서를 밝게될 것 같다.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를 큰 장애요인들을 고려치 않는다면, 통일은 대개 1990.10월-1991.2월에 이루어질 것이다. 늦더라도 당초 예정시기보다는 1년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많은 他國의 전문가들과 서독의 전문가들조차 양독 통일이 먼 훗날의 것으로 알아왔고 특히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의 전문가 및 정치인들이 독일을 분단상태로 두는 것이 유럽의 안전보장상 좋은 일이라고 믿어왔던²⁰⁾ 그 동·서 양독이 실용-개방주의 소련 정치가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에 따른 동부 유럽내의 개방·개혁 바람, 그리고 그러한 정세변화에 대한 양독 정치지도자들의 적절한 적응으로 재통일을 머지않아 맞게 된 것이다.

이제 이 글을 끝맺으면서 同族이 분단상태에 있을 때 양방 상호간에 不信제거와 꾸준한 去來,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대결의 제거 내지 감소가 이루어지면, 주위 국제정세의 好機가 생길 때 비교적 쉽게 다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20) Schierbaum, H., 1976, "Detente and Coexistenc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on the Chances and Limitations of Future Developments in Germany," in: Kim, S.(ed.), 1977, *op. cit.*, p.103.
Faringdon, H., 1989, *op. cit.*, p.259.
Cohen, S.B., 1973, *op. cit.*, p.83.

A Political Geographical Study on Dynamic Processes of the Unification of Two Germanys: Centered on the Standpoints of Four Great Powers

Duck-Soon Im*

Summar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lities in dynamic processes of the several standpoints of Germany unification and their changes of the four great powers (USSR, US, FRANCE, and UK). Documentary method used daily newspapers (the Chosun Ilbos, Oct., 1, 1989-Aug., 25, 1990) and hermeneutic one based on interpreting phenomena by means of the author's structure of knowledges related and viewpoints were used here.

In this study were the several specialist's cognitions toward Germanys since Second World War, four great power's standpoints in Germany unification, author's political-geographical interpretations of these standpoints and their changes with time, factors(geographic and other) influenced upon the formation of the standpoints and their changes, and synthetical grasping(including the possibility of the Germany unification) dealt success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USSR's political leaders, having been in the fear of attacks from the west, at first had a policy of 'neutralized unification' of two Germanys. The policy was changed recently to 'unification of two Germanys in NATO frame', through the considerations of persuasions from US and West Germany's leaders, realistic and serious examination of security possibility,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above states in economy and politics in

future.

The US, having been in a status of police in Western World, have a little early made a definite decision upon the unification. The decision is a plan of unification of two Germanys in NATO frame. This was accepted by West Germany, the UK, and the USSR through the US's persistent negotiations and actions with/to them.

In the processes of mutual consent came the US to an agreement with West Germany and the UK respectively with relative ease in virtue of his national power and existing political leadership in Europe and deep friendship with the UK.

France, having been in contiguous location with Germany and in the fear of attack from this state, at first insisted unification of two Germanys in the EC. At last the state however decided to accept the US's plan, plan of 'unification of two Germanys in NATO frame'. In that decision-making process might the friendship-relation with West Germany, positive possibility of security in Middle Europe by means of the unification in NATO, her own's relatively weak power having limitation in destructing grand tendency be deliberately considered.

The UK, located across Dover strait, at first opposed to the unification to fear of the destruction of the balance of power in European continent. The traditional orientation

* Associate Professor of Geograph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o friendship-relation with the US, requirement of continuous UK-US relation of cooperation, and negative attitude to disharmony among European states which might be occurred owing to her anti-tendency made the UK follow decision of the US in the unification problem.

2. Based upon such several action and facts as the mutual consent among four great powers on the Germany-unification policy, West Germany's acceptance of the US plan, East Germany's decision to be annexed into West Germany, creditable promise to maintenance of existing Oder-Neisse boundary between East Germany and Poland at so called '2+4+ Poland' conference, Czechoslovakia and Poland's opposition to neutralized unification of two Germanys in fear of strengthened unified Germany's possible attack to their own states, and Germany's political leader's excellent wisdom of adaptation to changing and fruitful situation of Middle and Eastern Europe shall the unification be realized in very near future (Oct., 1990 – Feb., 1991).
3. Following factors are based in the formation of standpoints of the unification and their changes of four great powers and states involved.

- 1) geographic distance to Germany
 - 2) Germany's location in Middle Europe
 - 3) fear of unified Germany's destruction of neutrality
 - 4) realistic interests in international politics
 - 5) national prestige (especially the USSR)
 - 6) desire for maintenance of existing friendship-relations with contiguous states and friend ones (especially France)
 - 7) desire for maintenance of the balance of power in Europe (especially UK)
 - 8) desire for maintenance of close relations with the US (especially UK)
 - 9) history of 'one state', Charlemagne Empire, in the past composed of present two Germanys, France, Italy, and Benelux states
4. According to several specialists (political geographers, political scientists, and politicians), the unification of two Germanys is an expectation which shall be achieved in far future. Debut of the USSR's political leader Gorbachev executing open-and-reform policy and its tendentious waves strongly influenced upon European politics, especially Germany-unification problem. These are worthy to be remembered in this unification discussion today.